

『강희자전』 전래본의 조사 분석과 현대적 활용 연구

A Study 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Hereditary Texts of
Ganghee Dictionary and its Modern Utilization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 |
| 1.1 연구의 목적 | 3.2 국외 「강희자전」 전래본 |
| 1.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 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 2. 자서와 「강희자전」 | 4. 「강희자전」의 현대적 활용 |
| 2.1 자서 | 4.1 현대적 「강희자전」의 수정과 교감 |
| 2.2 「강희자전」의 편찬 | 4.2 전자판 「강희자전」 |
| 2.3 「강희자전」의 판본 | 5. 결 언 |
| 3. 국내외 「강희자전」 전래본의 조사와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

『康熙字典』은 청대 강희의 칙명으로 편찬된 고대 최대의 자전으로 역대 자서를 집대성하여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자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강희자전』의 국내외 전래본 조사 분석과 현대적 활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자전의 정의와 중국과 한국의 자전 분류를 살폈으며, 『강희자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저자와 구성 및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고 다양한 판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외에 대학도서관의 소장본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중국과 대만 및 미국 등의 전래본을 조사 분석하였다.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13종 중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5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4) 『강희자전』의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현대에 이루어진 『강희자전』에 대한 새로운 수정본과 교감본 그리고 전자판의 간행과 구출을 조사하였다.

要語: 강희, 강희자전, 도광전본, 내부간본, 자서, 자전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접수일: 2013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2일

<ABSTRACT>

Ganghee Dictionary is the largest dictionary of characters in ancient times, which was edited in according with the imperial order of *Ganghee* in Chung times. It was made through integration of character dictionary of many generations, using the name *Jajeon*(字典)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with the aim of investigat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hereditary texts of *Ganghee* Dictionary and study on its modern utilization.

Firstly, there was study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Jajeon* in China and Korea and author, structure, and advantage and disadvantages of edition of *Ganghee* Dictionary and various texts of *Ganghee* Dictionary were studied.

Secondly, texts possessed by university libraries in addition to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Kyujanggak*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hereditary texts in China, Taiwan and the US were also studied and analyzed.

Thirdly, out of 13 types of texts own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5 types which were available with full-text DB, were comparatively analyzed.

Fourthly, for modern utilization of *Ganghee* Dictionary, electronic versions of *Ganghee* Dictionary as well as newly revised version and comparatively corrected version of *Ganghee* Dictionary were investigated.

Key words: *Ganghee*, *Kangxi*, *Ganghee* Dictionary, *Kangxi* Dictionary, *Dokwangjeonbon*, *Daogwangdianben*, *Naebuganbon*, *Neibukanben*, *Jajeon*, *Zidian*, Dictionary

1. 서 언

1.1 연구의 목적

자서(字書)는 ‘자원(字典)’, ‘옥편(玉篇)’ 등으로 불리우며, 각 글자를 부수(部首)와 획수들에 따라 배열하고 각 글자마다 자체(字體), 자음(字音), 자의(字義)와 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서의 원류는 한(漢)나라의 허신(許慎)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까지 소급되나, 자전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청나라 강희(康熙)의 칙명으로 편찬된 『강희사전(康熙字典)』이다. 『강희사전』은 역대의 자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고대 최대의 수록범위와 214부 부수로의 자형배열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사전석요(字典釋要)』 등과 같은 자전 편찬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강희사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전 또는 사전 편찬에 대한 역사적 연구¹⁾와 한국과 중국의 자전 비교연구²⁾ 외에 일부 개괄적인 서지적 연구³⁾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최초의 자전인 『강희사전』에 대한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전자판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연구도 이루어졌다.⁴⁾ 그러나 『강희사전』에 대한 언어적 또는 문자적 연구와 개괄적인 서지적 연구 외에 전래본에 대한 고찰과 현대 전자판에 대한 조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희사전』의 국내외 전래본 조사 분석과 현대적 활용을 목적으로 자서와 『강희사전』의 편찬과 판본 고찰 외에 한국, 중국,

1) 이충구, “韓國字典 成立의 考,” 『반교어문연구』 3(1991. 12), 9-27.; 왕력 저, 이종진, 이홍진 공역, 『중국언어학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胡樸安, 『中國文字學史』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79).

2) 전일주, “康熙字典과 韓國 初期 字典 比較 研究: 『字典釋要』와 『新字典』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6(2006), 357-386.

3) 朴尙均, “辭書이야기(Ⅱ): 中國古辭書類,” 『東洋學簡報』 2:1(1985), 2-7.; 朴尙均, “韓國字書의 書誌의 研究,” 『(경기대학교)論文集』 19:1(1986), 243-269.

4) 邢宇皓, “『康熙字典』 收錄57557個漢字完成數字化,” 『中國網』 (2009.12.14) <<http://hanyu.iciba.com/a/20091214/3411.shtml>>.

대만 및 미국 등의 국내외 전래본을 조사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강희사전』의 현대적 수정과 교감 그리고 전자판 『강희사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연구방법과 일부 연구 상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와 역사연구. 자서의 분류와 『강희사전』의 편찬과 판본 고찰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역사연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인터넷조사연구. 국내외 전래본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조사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도서관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외에 대학도서관을 조사하고, 국외의 경우 중국과 대만의 국가도서관 및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하버드대학도서관을 조사하고자 한다.

2) 국내 『강희사전』 소장본 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조사하고, 일부 확인을 위하여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국외 『강희사전』 소장본의 경우 각각 개별 도서관의 홈페이지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일부 해외소장본에 대한 기본조사와 서지사항의 경우 제공정보의 내용과 체계가 국내와 다르고, 또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누락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 국내의 『강희사전』 전래본의 분석을 위하여 간사사항미상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간사자와 간사지 및 판본 분석을 위한 기본정보는 온라인 목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부분 또한 일부 각 도서관의 정보제공 누락과 부정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실사. 국내 전래본 중 국립중앙도서관 『강희사전』 소장본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웹 DB가 구축된 판본을 대상으로 원문 실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외의 국내외 『강희사전』 전래본의 판본에 대한 조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서지적 연구. 국내외 「강희자전」 전래본의 분석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비교 분석 그리고 현대의 「강희자전」 수정본 등의 조사를 위하여 서지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자서와 「강희자전」

본 장에서는 자서의 정의와 중국과 한국의 분류 및 「강희자전」의 편찬과 판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자서

‘자서(字書)’란 한자를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읽는 법 또는 주음과 의미 등을 해설한 책이다. 전통적으로 ‘자림(字林), 자원(字苑), 자통(字通), 자관(字貫), 자원(字源), 자휘(字彙), 옥편(玉篇)’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옥편과 자전이다. 일반적으로 자전은 각 글자를 부수와 획수에 따라 배열하고, 각 글자마다 자체(字體), 자음(字音), 자의(字義)와 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자서의 원류는 한(漢) 허신(許慎)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시작되나, 옥편이 처음 나온 것은 양(梁) 고야왕(顧野王)이 편찬한 「옥편」에서 비롯한다. 그 뒤 여침(呂忱)의 「자림」, 풍간괄(馮幹括)의 「자원」, 이종주(李從周)의 「자통」, 매옹조(梅膺祚)의 「자휘」, 왕석후(王錫侯)의 「자관」 등이 편찬되었다. 그중 자전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청대 강희(康熙)의 칙명으로 편찬된 「강희자전」에서이다.⁵⁾

5) Baidu(百度). <<http://www.baidu.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전통적으로 자서는 소학류에 분류되어 왔으며, 청조흠정급봉칙편찬전적(淸朝欽定及奉敕編撰典籍) 목록 중 경부(經部)의 소학류에도 「강희자전」이 포함되어 있다.⁶⁾ 한편, 중국의 현대 자서 분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⁷⁾

첫째, 아동 글자학습용. 이런 종류는 한대에 유행한 이사(李斯) 등의 「창힐편(倉頡篇)」, 사유(史游)의 「급취편(急就篇)」이 있다. 그중 「급취편」만 전하고 있다.

둘째, 형체의 편방에 따라 편집배열된 자서.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전서(篆書)의 형체를 분리하여 부수로 문자배열한 이후 이러한 체제의 자서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예로 고야왕의 「옥편」, 송 사마광(司馬光) 등의 「유편(類篇)」, 명 매응조의 「자휘」, 장자열(張自烈)의 「정자통(正字通)」, 청 관찬의 「강희자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글자체 정정 자서. 당대 안원손(顏元孫)의 「간록자서(干祿字書)」, 장삼(張參)의 「오경문자(五經文字)」, 당현도(唐玄度)의 「구경자양(九經字樣)」은 모두 필획의 오류를 정정하고 있는 책이다. 이후 송대 장유(張有)의 「복고편(復古編)」, 원대 이문중(李文仲)의 「자감(字鑑)」, 명대 초횡(焦竑)의 「속서간오(俗書刊誤)」도 이런 종류이다.

넷째, 전서, 예서, 고문자를 집록한 자서. 송대 곽충서(郭忠恕)의 「한간(汗簡)」, 하송(夏竦)의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 누기(婁機)의 「한예자원(漢隸字源)」과 근대 용경(容庚)의 「금문편(金文編)」, 손해파(孫海波)의 「갑골문편(甲骨文編)」, 나진옥(羅振玉)의 「비별자(碑別字)」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 ① 역류: 御定易經通注, 日講易經解義, 御纂周易折中, ② 서류: 日講書經解義, 欽定書經傳說匯纂, 欽定書經圖說, ③ 시류: 欽定詩經傳說匯纂, 御筆詩經圖, 欽定四庫全書薈要-御纂詩義折中, ④ 악류: 御制律呂正義后編, 欽定詩經樂譜, 欽定樂律正俗, ⑤ 예류: 日講禮記解義, 欽定禮記義疏, 欽定四庫全書薈要-欽定周官義疏, ⑥ 춘추류: 欽定春秋左傳讀本, 欽定春秋傳說匯纂, 日講春秋解義, ⑦ 사서경총: 欽定繙繹五經, 日講四書解義, 御制繙譯四書集注, ⑧ 소학류: 康熙字典, 御制清文鑒, 御制滿蒙文鑒, 欽定叶韻匯輯, 欽定音韻闡微, 欽定同文韻統, 欽定西域同文志, 御制增訂清文鑒, 御制四體清文鑒, 欽定清漢對音字式, 御制五體清文鑒, 御制滿洲蒙古漢字三合切音清文鑒, 欽定蒙文匯書, 御纂春秋直解.

7) Baidu(百度). <<http://www.baidu.com/>>.

다섯째, 육서로 문자를 분석한 자서. 송대 정초(鄭樵)의 「육서략(六書略)」, 원대 대동(戴侗)의 「육서고(六書故)」와 양환(楊桓)의 「육서통(六書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한국의 자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⁸⁾

첫째, 자형서. 이는 글자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는 자서로서 「설문해자익징(說文解字翼徵)」이 있다.

둘째, 자음서. 이는 글자의 음에 관한 자서로서 「동국정운(東國正韻)」,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삼성운휘(三聲韻彙)」, 「규장전운(奎章全韻)」이 있다.

셋째, 자의서. 이는 글자의 식의를 기술하고 있는 자서로서 「훈몽자회(訓蒙字會)」, 「신증유합(新增類合)」, 「천자문(千字文)」, 「아학편(兒學編)」, 「자류주석(字類註釋)」이 있다.

넷째, 자전. 자전류에는 「운회옥편(韻會玉篇)」, 「삼운성휘보옥편(三韻聲彙補玉篇)」, 「전운옥편(全韻玉篇)」이 있다.

종합적으로 「강희자전」은 전통적 분류법에 의거하여 경부의 소학류에 분류되어 오다가 현대에 이르러 중국의 경우 형태에 따라 편집 배열한 자서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자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2.2 「강희자전」의 편찬

「강희자전」은 명대 매옹조(梅膺祚)의 「자휘(字彙)」와 장자열(張自烈)의 「정자통(正字通)」이 전자는 너무 간략하고 후자는 너무 상세하여 이들을 조합한 새로운 자전이 필요하다고 여겨 강희의 칙명으로 편찬된 것이다.⁹⁾ 본장에서 「강희자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저자, 구성과 배열 및 평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8) 이충구, “韓國字典 成立의 考,” 「반교어문연구」 3(1991. 12), 25.

9) 「康熙字典」 ‘御製序’, ‘上諭’.

2.2.1 저자

강희 49년(1710)에 시작하여 6년만인 강희 55년(1716)에 완성하였는데, 당시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었다. 『강희자전』 권수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장옥서(張玉書)¹⁰가 총열관(總閱官)을 담당하고 진정경(陳廷敬)¹¹이 보조(補助)하였다. 이외에 사기(史夔), 오세도(吳世燾), 만경(萬經), 유암(劉巖), 주기위(周起渭), 장정석(蔣廷錫), 왕용(汪瀝), 여정의(勵廷儀), 장일소(張逸少), 조응조(趙熊詔), 도천상(涂天相), 왕운금(王雲錦), 가국유(賈國維), 유호(劉灝), 매지형(梅之珩), 진장(陳璋), 진방언(陳邦彥), 왕경증(王景曾), 능소문(凌紹雯) 등의 28인이 찬수관(纂修官)을 담당하였다.

이상과 같이 『강희자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저명한 30인의 학자가 편찬에 참여하였다. 참고로 일부 도서관의 저자사항을 살펴보면 ‘張玉書 等編(纂)’ 또는 ‘凌紹雯 等編(纂)’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의 기록 중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담당자를 저자사항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2 구성과 배열

『강희자전』은 12지지(地支)에 의해 12집(集)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은 다시 상, 중, 하 3권으로 나누었다. 앞부분의 범례(凡例), 등운(等韻), 총목(總目), 검자(檢字)와 뒷부분의 보유(補遺), 비고(備考) 등 6권을 합하여 모두 4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214부(部)를 세우고 1획에서 17획까지 필획순에 따라 배열하고, 각 부에 해당하는 글자 또한 필획순에 의해 수록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10) 장옥서(1642-1711)는 자 소존(素存), 호 윤포(潤浦)이며, 장구징(張九徵)의 차자이다. 순치(順治) 18년(1661) 진사하여 관직 50년 동안 태평재상(太平宰相) 20년을 지냈다. 강희 18년(1679)에 『명사(明史)』 편찬을 주최하고 『태평소막방략(平定朔漢方略)』, 『패문운부(佩文韻府)』, 『강희자전』의 총재관(總裁官)을 지냈다.

11) 진정경(1639-1712)은 원명은 진경(陳敬), 자 자서(子端), 호 열암(說巖), 만호(晩號) 오정산인(午亭山人)이다. 초명은 경(敬)이나 과거에 급제 후 동명인 자가 있어서 조정에서 그의 이름에 ‘廷’자를 더하여 주었기에 ‘廷敬’으로 개명하였다.

<표 1> 「강희자전」의 구성

구 분	내 용	
권수부분	御制序, 凡例, 等韻, 總目, 檢字	
본문	子集	上: 一丨、ノ乙」二一 中: 人 下: 儿入八冂ㄣ? 几口刀カ夕匕口口十卜口尸ム又
	丑集	上: 口口 中: 土土久 下: 夕夕大女
	寅集	上: 子ㄣ寸小尤尸𠂇 中: 山ㄣ工己巾 下: 干玄广乚井弋弓コ多彳
	卯集	上: 心 中: 戈戶手 下: 支支文斗斤方无
	辰集	上: 日日月 中: 木 下: 欠止歹受母比毛氏气
	巳集	上: 水 中: 火爪父爻另片牙 下: 牛犬
	午集	上: 玄玉瓜瓦甘生用田疋 中: 疒ㄣ白皮皿目矛矢 下: 石示内禾穴立
	未集	上: 竹米 中: 糸缶罔羊羽老而耒耳聿 下: 肉臣自至白舌舛舟良色
	申集	上: 艸 中: 虎虫 下: 血行衣西
	酉集	上: 見角言 中: 谷豆豕彡貝赤走足身 下: 車辛辰彡邑酉采里
	戌集	上: 金長門 中: 阜隶佳雨青非面革韋韭音 下: 頁風飛食首香
	亥集	上: 馬骨高髟斗鬯鬲鬼 中: 魚鳥 下: 鹵鹿麥麻黃黍黑帶甞鼎鼓鼠鼻齊齒龍龜禽
권말부분	補遺, 備考, 後記 考證	

각 글자의 풀이는 음을 달고 뒤에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즉, 각 글자는 먼저 「당운(唐韻)」, 「광운(廣韻)」, 「집운(集韻)」, 「운회(韻會)」, 「홍무정운(洪武正韻)」,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 등 운서의 반절(反切)을 열거하고 본의를 설명하고 있다. 주음의 경우 반절과 직음의 주음 및 고음(古音) 등을 제공하였다. 석의는 옛 책에서의 예증을 들고 있으며, 대부분 서명과 편명을 표기하고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있다.

각 글자의 검색을 위하여 부수검자법과 필획검자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상서(尙書)」, 「맹자(孟子)」, 「장자(莊子)」, 「순자(荀子)」, 「세기(世紀)」, 「좌전(左傳)」 등 경, 사, 자, 집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2.2.3 「강희자전」의 평가

「설문해자」 이래 역대 자서를 집대성하고 있으며, 현대한어사전의 효시로서 「강희자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풍부한 글자의 수록. 수록한 글자가 총 47,035자로 글자의 별체(別體)와 속사(俗寫)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글자는 비슷하나 음의가 다른 것은 ‘의사(疑似)’에 편집하고 있으며, ‘비고(備考)’와 ‘보정(補正)’을 두고 있다. 즉, 1915년 「중화대사전(中華大字典)」 출판까지 글자수 최대의 사전이다.

둘째, 214개 부수분류. 「자휘」와 「정자통」의 뒤를 이어 214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이후 현대한어사전의 정형이 되었다.

셋째, 반절주음(反切注音). 이용자의 검색 편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글자에 반절과 직음 및 고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문해자」에 의거한 자형(字形)의 해석과 대표적인 운서의 음을 표기하고 있다. 즉, 전면적인 주음, 망라적 자음수록 및 운서에 따른 글자 배열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출처 및 참고 등의 명시. 역대 자서와 운서 등에 나타난 의미는 물론 새로운 어휘나 외래어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다섯째, 풍부한 예증. 예증의 인용문이 매우 풍부하고 서명과 편명이 비교적 정확하다. 벽자벽의(僻字僻義) 이외의 대부분 글자와 석의에 예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始見’한 고서에서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강희자전」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내용이 방대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이용에 다소 불편하다. 따라서 장원제(張元濟)의 「절본강희자전(節本康熙字典)」과 같은 정본류가 1949년에 간행되었다.

둘째,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오류가 적지 않다. 이후 왕인지에 의한 교개본(校改本)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정과 교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반절과 훈석의 나열로 기준이 다소 애매하고, 이로 인해 학문입문자와

현대적인 이용에 다소 불편하다.

2.3 「강희자전」의 판본

「강희자전」은 내부간본과 왕인지의 도광전본 간행 이후에 만청시기에 다양한 번각본, 석인본 및 신연활자본 등이 간행되었다. 「강희자전」의 다양한 판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희 55년(1716) 무영전본(武英殿本). 이는 42권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내부간본(內附刊本)으로도 불리우며 ‘강희내부각본(康熙內府刻本)’ 또는 ‘무영전판본(武英殿版本)’으로도 불리운다(이하 내부간본). Biedu(百度)에 의하면 2종류의 지본(紙本, 개화지(開化紙)와 태사연지(太史連紙))이 있다. 이는 대부분 내정상사용(內廷賞賜用)으로 장정이 매우 호화롭고 민간에는 별로 전하지 않는다.

둘째, 도광 7년(1827)의 내부중간본(內府重刊本). 이는 42권의 도광전본(道光殿本) 또는 왕인지교개본(王引之校改本)으로도 불리운다(이하 도광전본). 「강희자전」의 공식적인 수정은 한 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 이전의 발견도 있었다. 건륭(乾隆) 년간에 왕석후(王錫侯)의 「자관(字慣)」에서 최초로 「강희자전」이 인증(引證), 석의 등 방면에 결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황제 ‘어정(御定)’의 엄격함을 범하였다 하여 참수되고 책은 소각되었다. 이후 「강희자전」 완성 후 이루어진 단 한 차례 수정본으로 도광 7년에 약 90여 명이 다섯 차례에 걸쳐 교감, 글자오류의 수정, 인용문의 정정 등 2,588곳을 고치고 다시 간행하였다. 한편 왕인지는 교감문을 「자전고증(字典考證)」 12책으로 편집하였다.

셋째, 고이본(考異本).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江戸幕府) 말기와 명치시기의 학자이자 번역가, 교육가, 실업가였던 도부온(渡部溫 1837-1898)이 7년의 시간을 들여 명치 20년(1887)에 「표주증정강희자전(標注證正康熙字典)」을 편찬하였다. 이후 도부온과 중국의 저명한 학자 왕력(王力)이 이를 대상으로 교감을 진행한 것이 「강희자전고이정오(康熙字典考異正誤)」로 고이 1,930여 자,

정오 4,000여 조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넷째, 번각본. 『강희자전』 내부간본과 도광전본 간행 이후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 다양한 목판의 번각본이 간행되었다.

다섯째, 합철본. 내부간본과 잉인지의 『자전고증』을 합철한 43권본이다. 이후 『강희자전』이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방식으로 합철 간행되는데, 그중 가장 유행하고 영향력이 컸던 것은 중화서국본(中華書局本)이다. 참고로 1990년에 도광전본이 발견되면서 상해고적출판사에서 도광전본과 『자전고증』 및 『강희자전고이정오』 합철본을 간행하였다.

여섯째, 기타. 『강희자전』 기타 판본으로 청말의 석인본(石印本), 연인본(鉛印本), 영인본(影印本) 등이 있다. 그중 청말의 상해(上海) 동문서국(同文書局)이 증전(增篆)한 석인본이 가장 대량으로 발행되어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3. 국내외 『강희자전』 전래본의 조사와 분석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은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서명 ‘강희자전’으로 검색되는 전래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등외에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중국과 대만 및 미국의 국가도서관 또는 의회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1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

간사사항이 확인가능한 판본을 대상으로 크게 중간본과 번각본 그리고 석인본과 신연활자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¹²⁾

12) 국내 전래본 중 내부간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費5-1309)과 규장각 소장본(奎中2763 등)으로 보이나 간사사항 미상으로 이에 대한 상세조사는 후일을 기약한다.

3.1.1 중간본과 번각본

일본에서 간행된 번각본을 포함하여 중간본과 번각본을 대상으로 소장처와 간사년 및 권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1.1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7종, 국회도서관 1종, 규장각 7종, 부산시민도서관 1종, 장서각 7종이 소장되어 있고 그 외에 대학도서관으로 경기대 1종, 경희대 15종, 계명대 1종, 고려대 7종, 단국대 1종, 동국대 1종, 서울대 3종, 성대 존경각 4종, 숙대 2종, 영남대 3종, 원광대 2종, 이화여대 1종, 인하대 1종, 전남대 1종, 전북대 1종, 중앙대 1종, 충남대 5종, 한양대에 1종이 소장되어 있다. 즉, 23곳의 도서관에 6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경희대 도서관에 15종으로 가장 많은 전래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및 장서각 그리고 고려대 도서관에도 각 7종씩 소장되어 있다.

3.1.1.2 간사년

석인본과 신연활자본을 제외한 중간본, 번각본 등으로 간기가 있는 것 또는 간사사항에 간사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조사 정리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다.¹³⁾

<표 2>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1827년 왕인지의 도광전본이 가장 많이 국내에 전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80년과 1892년의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모두 ‘서’에 간기가 있다. 1780년본은 내부간본의 번각본이고, 1892년본은 도광전본의 번각본으로 사료되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3) 대부분 간기가 있으나 간기 없이 간사년 만을 기록하고 있는 판본의 경우 이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 중의 ①은 중간 간기가 있는 것, ②는 간사사항에 간사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의 내용은 특이한 간사사항 또는 주기사항의 출처이다.

<표 2>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 중 중간본의 간사년

간사년	소장 도서관	비고
1780	① 국중(BA古5-13-11)	일본, 序
1827	① 고려대(경화당A12-B1G-1-6, 8-21, 24-28, 30-31, 33-36), 동국대(D419.302-강98-2-卷1-40), 서울대(3912-23D-1-40; 495.13-C4206g2-v.1-32), 숙대(CL412.3-장육서-강-가 v1-39), 영남대(古南723.2-강희자: 古南723.2-강희자口 卷首), 전북대(412.32 - 강희자 卷1-40), 인하대(H412.32-장65강-v.1-40), 장서각(C1-222; C1-225; C1-226), 충남대(總.字彙類-201 1-32; 總.字彙類-22 1-40) ② 규장각(奎中2763; 奎中 5719), 경희대(412.3-강97○ 卷1-28), 영남대(古凡723.2-강희자전), 중앙대(412.12-릉소문강), 충남대(總.字彙類-54)	
1863	① 장서각(J1-185) ② 국중(BA3234-28), 규장각(奎中 5676-v.1-30), 고대(육당A12-C1-1-40), 성대(A10B-0001f)	須原屋茂兵衛
1875	① 숙대(CL412.3-장육서-강 v1-40)	崇文書局
1892	① 국중(古古5-13-1)	일본, 序
1895	② 성대(A10B-0001a)	

한편, 1863년의 것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 판본과 고려대 도서관 판본의 경우 간사사항이 ‘江戶: 須原屋茂兵衛, 文久 3(1863)’이다. 간사년의 ‘문구’는 일본 효명(孝明)의 연호(1861-1863)로 이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목판본의 중간본에 대한 번각본으로 생각된다.

3.1.1.3 권책

권책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결질본을 제외한 40권 또는 40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국내 도서관 소장본 중 40권 40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4곳으로 총 25종이다. 그러나 서지사항으로 파악한 것이기에 일부 권책구성의 복잡함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일례로 국립중앙도서관(B1古5-13-19)

「강희자전」 전래본의 조사 분석과 현대적 활용 연구

소장본의 경우 40권 40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자집상(子集上)’은 자집의 목록 부분이고 ‘자집상’은 결권이다. 이외의 도서관은 모두 결질로 소장하고 있다.

<표 3>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 중 중간본의 완질본

도서관	청 구 기 호
경희대	412.3-강97 卷1-6
계명대	412.32-성조 ㄱ
고려대	육당A12-C1-1-40, A12-B1B-1-40
국립중앙도서관	B1古5-13-19
규장각	奎中2763; 奎中2762; 一衰古 495.13-J256ga; 奎中3175, 奎中4362; 奎中5719
동국대	D419.302-강98-2
서울대	3912-23D-1-40, 3912-23B-1-40
성대	A10B-0001
숙대	CL412.3-장옥서-강v1-40
영남대	古南723.2-강희자; 古南723.2-강희자口卷首
장서각	C1-222; C1-225, ㄷ1-226; A10B-29A
전남대	1J2-강98ㄴ-v1-40
전북대	412.32 - 강희자
충남대	總, 字彙類-64

3.1.2 석인본과 신연활자본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 중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서명 「강희자전」으로 검색되는 국내 전래본 중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석인본과 신연활자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간사사항이 있는 판본을 대상으로 간사자와 간사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표 4> 참조).¹⁴⁾

14) 간사사항은 각 도서관의 서지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표 4> 국내 「강희자전」 전래본 중 석인본과 신연활자본

국가	간사사항	합계	비고
중국	中國: 鴻寶齋書局, [1917]	3	• 上海: 鴻寶齋書局
	上海: 鴻寶書局, 宣統 1(1909)	5	
	上海: 錦將圖書局, [刊寫年未詳]	1	
	中國: 商務印書館, [刊寫年未詳]	4	• 康熙 49(1910) • 宣統 3[1911] • 臺灣 商務印書館
	上海: 慎記書莊, 光緒 25(1899)	1	
	上海: 共和書局, 民國 3(1914)	3	
	上海: 昌文書局, 民國 9(1920)	2	
	上海: 廣益書局, [民國 6(1917)]	1	
	上海: 鴻文書局, 光緒 33(1909)	4	
	上海: 錦章書局, [刊寫年未詳]	8	• 金章圖書局
	[上海]: [久敬齋], 宣統己酉年(1909)	5	
	上海: 點石齋, 光緒 1(1886)	5	• 光緒十五年(1889) • 光緒二十年(1894) • 上海點石齋第二次印 • 上海久敬齋藏本點石齋代印
	上海: 中華圖書館, 民國 8[1919]	7	• 民國 2[1913] • 1922 • 中國: 中華圖書館
	上海: 瀛華書局, [光緒年間(1874-1908)]	2	• 동판본
	上海: 積山書局, 光緒 13(1887)	4	
	中國: 同文書局, 光緒 11(1885)	3	
	上海: 文盛堂, 光緒 24(1898)	2	
	上海: 上海書局, 光緒 31(1905)	2	
	上海: 大成書局, [刊寫年未詳]	1	
	中國: 掃葉山房, 道光 7(1827)	1	• 목판본
일본	東京: 山口屋佐七, 明治20(1887)	1	• 서명
	東京: 博文館, 1892	5	• 서명
	江戶: 須原屋茂兵衛, 日本文久 3(1863)		• 목판본
미상	13종		

3.1.2.1 간사자

석인본 또는 신연활자본 「강희사전」은 중국의 구경제, 홍보서국(홍보제서국), 금장도서국, 상무인서관(대만 상무인서관), 신기서장, 공화서국, 창문서국, 광익서국, 홍문서국, 금장서국(금장도서국), 중화도서관, 영화서국, 적산서국, 동문서국, 문성당, 상해서국, 대성서국, 소엽산방 등에서 출판하였다. 그중 금장서국과 중화서국 및 홍보서국 간행의 「강희사전」이 가장 많이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출판사명 등이 차이가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첫째, 출판사명의 차이. 홍보서국과 금장서국은 홍보제서국과 금장도서국으로 차이가 있다.

둘째, 중국과 대만의 출판사. 상무인서관의 경우 대부분은 중국을 간사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만인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홍콩 상무인서관에서 간행된 경우도 있는데, 일례로 상무인서관의 경우 지점 성격의 다른 지역에서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정확한 간사자. 이는 구경제와 점석재의 경우로서 일부 판본은 구경제로 일부 판본은 점석재를 간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주기사항을 살펴보면 ‘상해 점석재에서 제2차 인쇄’ 또는 ‘상해 구경제 장본으로 점석재가 대신 인쇄’의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하여 원래 구경제 장본이었던 것을 점석재에서 후속으로 인쇄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간행자가 [구경제]인 경우 점석재에서 간행하였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넷째, 간사자 미상. 간사지 상해만 기술하고 있는 1종의 판본을 포함하여 간사자 미상의 판본은 총 13종이다.

3.1.2.2 간사지

간사지의 소속 국가를 살펴보면 크게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23곳

중 3곳은 일본이다. 또한 중국내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해에서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으로 기술된 곳 역시 상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해가 전통적으로 주요 출판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개방의 중심지로서 현대적인 인쇄방식인 석인본이나 신연활자로 인쇄하면서 『강희자전』이 대량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이외에 일본에서 간행된 3종의 경우 산구옥좌칠, 박문관, 수원옥무병 위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음역(音譯)을 하거나 음석(音釋)한 판본이다.¹⁵⁾ 이는 일본의 수요에 맞추어 일본 음을 달거나 자의를 해설한 경우라 할 수 있다.

3.2 국외 「강희자전」 전래본

국의 소장본으로 중국과 대만의 국가도서관 및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하버드대학 도서관을 살펴보았으며, 소장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외 「강희자전」 소장현황

	서지사항	비고
중 국 국 가 도 서 관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編 清康熙間. 十二集. 總目一卷, 檢字一卷, 等韻一卷. 刻本, 8冊. 8行12字小字雙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 普通古籍 143964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清)奕繪等重修.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巾箱本, 大中小字單雙行不等白口四周雙邊雙魚尾	• 普通古籍 • 字139/827.3/部四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清)奕繪等重修.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雙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 普通古籍 • 150199
	康熙字典. (清)張玉書、凌紹雯等纂修. 內府, 清康熙[1662-1722]. 十二集: 三十六卷檢字辨似一卷等韻一卷補遺一卷備考一卷. 刻本, 38冊. 8行大小字相間, 小字雙行24字, 白口, 四周雙邊	• 善本 • A02130 • 古籍館善本閱覽室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清)奕繪等重修. 清道光7年[1827]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38冊. 8行12字小字雙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 普通古籍 • 字139/827.1/部四 • 字139/827.1/部五

15) 수원옥무병위의 경우는 목판본으로 번각되었던 것이 후에 석인본으로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강희자전」 전래본의 조사 분석과 현대적 활용 연구

	서지사항	비고
중 국 국 가 도 서 관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 (清)奕繪等重修 清道光7年[1827]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雙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1/部三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 (清)奕繪等重修 清道光7年[1827]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雙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有朱筆圈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144047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 (清)奕繪等重修 清道光7年[1827]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雙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1 • 字139/827.1/部二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武英殿, 清康熙間[1662-1722]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16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部五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武英殿, 清康熙間[1662-1722]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16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部四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武英殿, 清康熙間[1662-1722]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16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部三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武英殿, 清康熙間[1662-1722].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16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 827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武英殿, 清康熙間[1662-1722]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8行12字小字16行24字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部二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 (清)奕繪等重修 清[1644-1911]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巾箱本, 8行大中小字單雙行不等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3/部三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 (清)奕繪等重修 清[1644-1911]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巾箱本, 8行大中小字單雙行不等白口四周單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3/部二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清[1644-1911].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巾箱本, 8行大中小字單雙行不等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2/部二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 (清)奕繪等重修 清[1644-1911]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巾箱本, 8行大中小字單雙行不等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3
	康熙字典, (清)張玉書等纂, 清[1644-1911]. 十二集, 檢字一卷, 辨似一卷, 等韻一卷, 總目一卷, 備考一卷, 補遺一卷, 刻本, 40冊 巾箱本, 8行大中小字單雙行不等白口四周雙邊單魚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普通古籍 • 字139/827.2

	서지사항	비고
대 만 국 가 도 서 관	康熙字典. (清)張玉書(奉敕撰). 清道光七年(1827). 重刊本. 存3冊	• 索書號: 110.23 21465
	康熙字典(清)張玉書(奉敕撰). 清康熙五十五年(1716). 內府刊本. 40冊. 匡19.2x13.7公分	• 309 24907
	康熙字典. (清)張玉書(奉敕撰). 清康熙五十五年(1716). 三六卷.總目一卷,檢字一卷,辨似一卷,等韻一卷,補遺一卷,備考一卷. 內府刊本. 40冊	• 110.23 22964
미 국	康熙字典 kang Xi Zi Dian. (清)張玉書等奉敕撰. 日本安永九年大阪風月莊左門衛翻刻本. A.D.1780. 四十一冊十函. 八行大字不等. 小字十六行二十四字	• 의회도서관 • 00003950
	康熙字典. (清)張玉書等. 十二集四十四卷. 日本安永九年大阪風月莊左門衛翻刻本	• 의회도서관 • 00003047 • OPL1420K31780copy1
	康熙字典 Zong yue guan Zhang Yushu等 [s.n.]. 康熙55 [1716] 序	• 하버드대학 도서관 • 普通古籍

<표 5>에서와 같이 중국 국가도서관에는 선본 1종(A02130)과 19종의 보통고적이 소장되어 있다.¹⁶⁾ 한편, 선본의 경우 38책이나 이외 보통고적의 경우 3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40책으로 완결본이다. 보통고적 중 무영진이 간사자인 5종의 경우 번각본으로 생각된다. 선본은 내부간본이며 그 외의 ‘奕繪等重修’는 왕인지도광전본으로 9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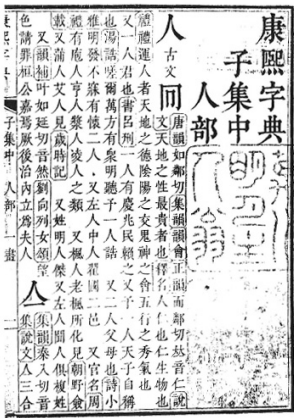
대만의 경우 국가도서관에 내부간본 2종과 중간본 1종이 소장되어 있다. 내부간본의 경우 40책이며, 중간본의 경우 3책만이 잔존되어 있다.

미국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는데 의회도서관 소장본은 모두 번각본 2종이며 그중 1종(00003950)은 일본에서 1780년에 이루어진 내부간본에 대한 번각본으로 생각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도서관에도 보통고적 1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하버드대학교 선본특장실에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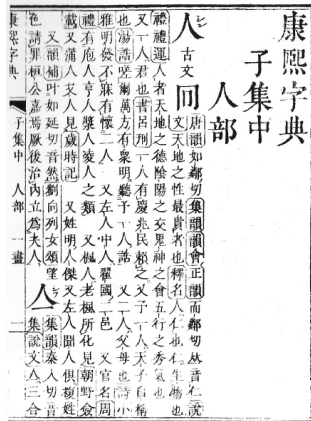
16) 중국에서의 선본의 개념은 송대에 시작되었다. 즉, 판각한 정품(精品)의 판본을 이르던 것으로 교감이 잘되고, 장정이 우수하며, 전래된 것이 적고,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서적을 이른다. 시기적 기준은 청 건륭 60년(1795) 이전의 것을 말한다.

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귀중본 1종과 석인본 1종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강희자전」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5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古貴5-13-19 子集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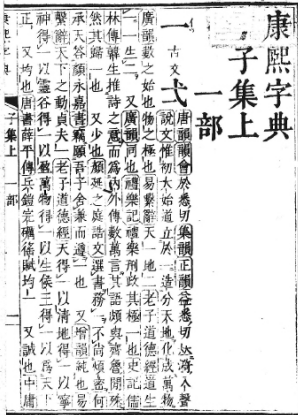


<그림 2> 古古5-13-11 子集

국립중앙도서관의 古貴5-13-19(<그림 1>)는 귀중본으로 42권 40책의 목판본으로 간사사항은 미상이다. 다만 ‘子集 上’의 경우 「강희자전」 정문의 시작부분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자집의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자집 상은 결본이다. 반면, 번각본의 古古5-13-11(<그림 2>, <그림 3>)은 일본목판본으로 강희 55년의 어제서 외에 ‘序: 安永戊戌(1778)’과 ‘刊記: 安永九庚子年(1780)’의 기록이 있으며 완질본이다. 古貴5-13-19의 권수제면이 없으므로 古貴 5-13-19와 번각본 古古5-13-11의 자집 중의 권수면인 <그림 1>과 <그림 2>를 살펴보면 두 판본의 차이는 없다.

한편, 古3234-27(<그림 4>)은 40권 6책의 일본목판본으로 ‘序: 明治十五年壬午(1882) ... (日本)石川英’과 刊記: 明治壬辰(1892) ... 東京博文館刊’ 기록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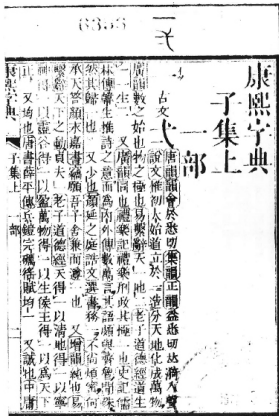
으며, 이에 대하여 석인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부 도서관도 있다. 古3234-28 (<그림 5>)은 39책의 일본목판본으로 간사년 ‘文73(1863)’의 기록으로 보아 전술의 ‘江戸: 須原屋茂兵衛, 日文久 3(1863)’과 같은 판본으로 보인다.¹⁷⁾ 古3234-33 (<그림 6>)은 29책의 일본목판본으로 간사사항 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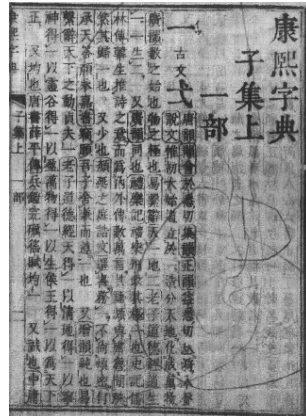
<그림 3> 古5-13-11 子集上



<그림 4> 古3234-27 子集上



<그림 5> 古3234-28 子集上



<그림 6> 古3234-33 子集上

17) ‘文’은 ‘文久’이며, ‘日文久’는 일본의 문구이다.

귀중본 古貴5-13-19 대신 번각본 古古5-13-11(<그림 3>)과 古3234-27(<그림 4>)은 古3234-28(<그림 5>), 古3234-33(<그림 6>)을 비교하여 보면 古古5-13-11과 古3234-33은 번각본으로 古貴5-13-19와 같다. 古3234-27과 古3234-28은 일본목판본으로 상단에 음석과 전서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古3234-27은 상단에 음석을 부가한 것 외에도 전체적인 형태가 다르다.

4. 「강희자전」의 현대적 활용

현대에 들어서도 「강희자전」에 대한 새로운 수정과 교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과학기술과 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판 「강희자전」이 출시되었다.

4.1 현대적 「강희자전」의 수정과 교감

현대에도 「강희자전」에 대한 새로운 수정본과 교감본 등이 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강희자전」 현대 판본

	출판사항	비고
1	上海古籍出版社, 1996.	• 합철본 • 도광전본영인본+字典考証+康熙字典考異正誤
2	漢語大字典出版社, 2002.	• 도광전본 • 標點整理本
3	時代文藝出版社, 1997.	• 「康熙字典通解」
4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7.	• 簡化字橫排版
5	中國檔案出版社, 2002.	• 現代檢索注音對照 • 中國檔案珍藏版
6	中華書局, 2004.	
7	中州古籍出版社, 2006.	• 上下卷
8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修訂版

이상 <표 6> 중 특징적인 간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희자전』 합철본. 이는 도광전본영인본과 『자전고증』과 『강희자전고이정오(康熙字典考異正誤)』를 합철한 것이다. 상해 고적출판사에서 1990년대에 도광전본(道光殿本)을 발견하여 도광전본에 수정한 부분과 『자전고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판본이 다름을 발견하고 일본 도부온(渡部溫)의 『강희자전고이정오』를 합철한 것이다. 글자는 허현교본(許鉉校本)인 『설문해자』에 의거하여 전문(篆文)을 열거하고, 앞부분에 부수목록을 더하고 뒷부분에 사각호마색인(四角號碼索引)을 첨부하고 있다.

둘째, 도광전본 표점정리본. 이는 도광전본을 기초로 한 참고별본(參校別本)이다. 원본의 비고와 보유를 정문으로 옮기고 신구자체를 병용하고 있고, 석문과의례는 신자체로 사용하고 있다. 원서에는 전문은 없는데, 현재 『서현교본설문해자』에 의거하여 현 규범의 소전을 정문 글자 뒤에 부여하고 있다. 권말에 신편사각호마색인(書末新編四角號碼索引)이 있어 원서의 정문, 보유, 비고 중의 모든 두문자(頭字)를 수록하고 있어 검색에 편리하다. ‘신구자형체대조거례표(新舊字形體對照舉例表)’를 열거하고 있으며, 전체 표점 및 주와 병음을 가했고 정체자로 가로배열하고 전문을 추가하였다.

셋째, 『강희자전통해(康熙字典通解)』. 이는 도광전본을 저본으로 교감하고 『자전고증』, 『강희자전고이정오』, 황운미(黃云眉) 『강희자전인서증오(康熙字典引書證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음으로 주음하고, 간화자(簡化字), 가로배열과 표점, 부수검자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자모절운요법(字母切韻要法)’ 등 4종은 제거하였다. 뒷부분에 전문출해전대조표(篆文出楷篆對照表)를 넣었다.

넷째, 『강희자전』 수정판. 『강희자전』 간행 300년만의 두 번째 수정으로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會科學文獻出版社)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총 57,557개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어 『한어대사전(漢語大字典)』보다 3,000여 자가 더 많다. 이외에 원서 중의 수천 개의 유음무의(有音無義) 또는 유의무음(有義無音)의 글자의 경우 이번 수정 교감을 거쳐 최초로 해석되거나 주음을 갖게 되었다. 국제 Unicode 국제표준 중의 58,000개 글자를 이용하고 우선 자형은 『강희자전』의 13,000여

개의 글자에 대하여 2만여 항의 증보와 수정을 진행하였다.¹⁸⁾ 「강희사전」에 원래 있던 47,043개의 글자마다 이체자의 자간 관련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수정판은 일부 이체자사전으로 사용가능하다.

4.2 전자판 「강희사전」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전자판으로 구축 출시된 「강희사전」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전자판 「강희사전」

명 칭	경 로	비 고
康熙字典網上版	http://www.kangxizidian.com/	
漢典	http://www.zdic.net/	• 원문 단어 검색용
在線康熙字典查詢	http://zi.artx.cn/zi/	
康熙字典	http://kx.cdinet.info/	
在線新華字典	http://xh.5156edu.com/html5/280769.html	
在線康熙字典	http://www.name999.com/zd/	• 新華字典 등 포함
開放康熙字典	http://kangxi.adcs.org.tw/index.html	• 대만 전자판
字典通	http://www.zidiantong.com/	• 新華字典, 古漢語字典, 說文解字的 통합
TypeLand 康熙字典體(簡)	http://typeland.com/typeface/	• TypeLand가 「강희사전」 도광간본을 저본으로 개발한 글자체
康熙字典 DVD-ROM	AI-Net Corporation, 紀伊國屋書店, [2007]	• DVD-ROM
康熙字典撮要	Chalmers, John, Inter Documentation Company, [1982]	• 마이크로피시
開放康熙字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sana.kangxizidian	• Google Play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康熙字典 itunes	https://itunes.apple.com/us/app/kang-xi-zi-dian-sao-miao-ban/id431461750?mt=8	• 아이튠즈 애플리케이션

18) <<http://book.douban.com/subject/3028152/>>.

<표 7>과 같이 다양한 전자판 『강희자전』 외에도 스마트폰용 『강희자전』 어플리케이션도 구축되어 있다. 현재 대표적인 『강희자전』 전자판은 다음과 같은 3종이 있다.

첫째, 상해서동문(上海書同文) 『강희자전』 전자판. 서동문디지털기술유한공사(書同文數字化技術有限公司)가 제작하고 북경만방데이터베이스전자출판사(北京萬方數據電子出版社)가 2000년에 출시한 것으로 중국서국본(동문서국석인본과 왕인지의 『자전고증』이 부가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는 이용자에게 중, 일, 간체자, 번체자, 이체자 등의 한자 관련 검색기술을 제공하여 확실하게 문자를 모르는 이용자에게 편리하다. 즉, 자신이 잘 아는 중국한자 또는 일본한자 또는 번체자, 간체자, 이체자 심지어는 구자(舊字)와 와자(訛字)를 입력하면 모두 자전 중의 문자항목이 검색가능하다. 단어검색 외에 부수, 필획, 필순으로 검색가능하며, 또한 병음과 주음으로도 검색가능하며, Unicode, GBK,¹⁹⁾ Big5 인코딩²⁰⁾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준 발음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만 한진(臺灣漢珍) 『강희자전』 전자판. 한진공사는 『사고전서(四庫全書)』 전자판을 제작한 기관과 협력하여 2001년에 번체자 『강희자전』 전자판을 출시하였다. 『강희자전』 전자판 CD 또한 동문서국 출판의 석인본 『강희자전』을 저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뒷부분에 왕인지의 『자전고증』이 첨부되어 있다. 고적 디지털화 중 친화적 검색 브라우저로 BIG5, GBK와 Unicode와 부합되도록 각 문자내 번호와 상호 대조하고 단어, 부수, 필화, 필순, 주음 등 다원화적인 검색계층의 탐색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북경 중이(北京中易) 『강희자전』 전자판. 중이는 북경사범대학출판사판 『강희자전』을 채용하여 모든 글자와 석의의 임의 검색 실현과 원문 대조를 제공하는 전자자전이다. 이는 전자전문검색으로 Windows 플랫폼 상에서 한자 수량

19) GBK는 중국이 사용하는 간체자용의 문자코드로서 GB 2312의 확장이다. GB는 중국의 국가표준(Guójiā Biāozhǔn, 國家標準)의 약어이며, K는 확장(Kuòzhǎn, 擴展)의 의미이다. GB2312의 경우 1980년에 등록된 중국 간체자 세트 인터넷 이름으로 GBK와 GB18030의 후속이다. 다만 GB2312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0) Big-5 또는 Big5는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중국문자의 인코딩 방법이다. 중국의 경우 간체자용으로 'GB character set'를 사용하고 있다.

을 27,484자에서 70,195개로 확장한 기업판 중에 부대의(中易漢神e) 소프트웨어로서 제공하는 것은 국제표준번호 ISO/IEC 10646: 2003(Unicode 4.0)에 부합하는 7만 개의 한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6종의 검자방법이 제공되며 그중의 강희부수검자(康熙部首檢字), 필획수검자 및 강희서검자(康熙序檢字)는 마우스조작을 배우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다. 석문이 간단하고 변체자는 상호 석의변환으로 간화자를 사용하며, 표점단구(標點斷句)를 하였다. 변체자를 보려면 클릭 한 번으로 변체자로 변환되므로 대만, 홍콩, 마카오 및 기타 해외 이용자의 수요에 편리하다. 이용자가 읽고 있는 글자를 석문과 대조하려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원 내부간본 「강희사전」에 상응하는 그래픽이 검색되어 대조 가능하다. 표주의 병음과 주음의 경우 해당 글자의 ISO/IEC(Unicode) 국제표준번호와 정마(鄭碼) 인코딩²¹⁾ 등으로 대중성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외에 전술한 현대 「강희사전」 수정본 중 사회과학문헌출판사의 수정판(4.1 참조)도 Unicode 5.0 표준문자 중 베트남, 일본 등 기타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의 전문 문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부 Unicode 5.0의 문자사전으로 디지털화를 위해 정밀한 대교를 거쳤고 SSDB 한당도서CD데이터베이스(瀚堂圖書光盤數據庫)와 한당인터넷데이터베이스(瀚堂網絡數據庫)를 동시 출시하였다. 원판의 배열을 개정하여 가로쓰기로 하여 현대인의 열람습관을 고려하였으며, 원래의 반절음(反切音)에 대하여 현대한어주음으로 진행하였다. 표점을 추가하여 현대인의 열람상의 장애를 해결하였으며, 간체자를 입력하여 해당글자의 고자를 정확히 검색 가능하며 원문상의 글자도 제공하고 있다.

21) 중국국가 주관부문이 중국 국내외에 추천하는 중국어입력시스템이다. 정마시스템(鄭碼系統)으로 1989년 과학성, 창조성 및 실용성으로 중국, 미국, 영국의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중국특허번호는 89108851.2이다. 鄭碼網, “中華文化的瑰寶: 鄭碼漢字輸入系統,” <<http://www.china-e.com.cn/main/zhengma/jj.htm>>.

5. 결 언

『강희자전(康熙字典)』은 청대 강희의 칙명으로 조정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고대 최대의 자전으로 역대 자서를 집대성하여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자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강희자전』의 국내외 전래본 조사 분석과 현대적 활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자전의 정의와 중국과 한국의 자전 분류를 살펴보았다. 『강희자전』은 전통적 분류법에 의거하여 경부의 소학류에 분류되어 오다가 현대에 이르러 중국은 형체에 따라 편집 배열한 자서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은 자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강희자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저자와 구성과 배열 및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강희자전』의 저자 기록에 의하면 30인의 학자가 편찬에 참여하였는데, 일부 도서관의 저자사항 중 ‘張玉書 等編(纂)’ 또는 ‘凌紹雯 等編(纂)’은 전자는 첫 번째 저자를, 후자는 마지막 저자를 택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 『강희자전』의 판본을 고찰하였다. 강희 55년(1716) 목판본은 강희제의 칙명으로 42권으로 편찬된 내부간본(內附刊本, 武英殿本)과 도광 7년(1827)에 왕인지(王引之)에 의하여 처음으로 오류를 수정한 도광전본(道光殿本, 內府重刊本) 그리고 이후 번각본, 합철본, 고이본 및 석인본 등이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4) 『강희자전』의 국내외 전래본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외에 대학도서관의 소장본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경우 중국과 대만 및 미국 등의 전래본 또한 조사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강희자전』 13종 중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5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5) 『강희자전』의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 현대에 이루어진 『강희자전』에 대한 새로운 수정본과 교감본 외에 전자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대표적으로 상해서동문(上海書同文) 『강희자전』 전자판과 대만 한진(臺灣漢珍) 전자판의 저본은 동문서국(同文書局)의 석인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널리 유통되었

던 중화서국의 「강희자전」도 동문서국의 석인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동문서국의 「강희자전」 석인본이 가장 널리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강희자전의 국내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한 기존 전래본 외에 현대의 수정 및 교감본과 전자판 「강희자전」이 다양한 도서관의 자서 및 사전 정보원 구축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강희자전」의 판본과 전래본 그리고 현대적 활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문자학과 언어학 그리고 중국 자전 등에 대한 관련 연구자의 진일보한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Baidu(百度). <<http://www.baidu.com>>.

『康熙字典網上版』. <<http://www.kangxizidian.com>>.

朴尙均. “辭書이야기(Ⅱ): 中國古辭書類.” 『東洋學簡報』 2:1(1985). 2-7.

朴尙均. “韓國字書의 書誌의 研究.” 『(경기대학교)論文集』 19:1(1986). 243-269.

왕력 저, 이종진, 이흥진 공역. 『중국어언어학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이충구. “韓國字典 成立의 考.” 『반교어문연구』 3(1991. 12). 9-27.

『字典通』. <<http://www.zidiantong.com/>>.

전일주. “康熙字典과 韓國 初期 字典 比較 研究: 『字典釋要』와 『新字典』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6(2006). 357-386.

鄭碼網. “中華文化的瑰寶: 鄭碼漢字輸入系統.”

<<http://www.china-e.com.cn/main/zhengma/jj.htm>>.

周谷城. 『中國學術名著提要』 語言文字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2.

지석영. 『字典釋要』. 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邢宇皓. “『康熙字典』收錄57557個漢字完成數字化.” 『中國網』 (2009. 12. 14).

<<http://hanyu.iciba.com/a/20091214/3411.shtml>>.

胡樸安. 『中國文字學史』.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79.